

## 그루지야 체제전환과 경제발전<sup>1)</sup>

이상준 (국민대)

### 1. 서론

소련시기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과 관료제의 유산이 남아있는 가운데 내전을 경험하였고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친러와 친미 세력이 한차례씩 권력을 장악하였던 그루지야는 장미혁명으로 명명되는 시민혁명으로 권력이 교체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장미혁명이후 미국과 EU의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개혁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가진 CIS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적은 영토와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바꾸고 미국의 지원하에 개혁을 진행하는 모습은 과거 한국의 발전 조건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만을 수용한다면 소련이라는 공통된 역사의 경험이 있었고 또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하여 체제전환 프로그램을 수용하였기에 CIS국가들의 경제유형은 비슷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개혁초기부터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전개되었으나 경제침체에서 회복하는 양상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들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1992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였거나 뛰어넘었다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다수 있다. 그루지야는 후자의 경우이다.

카프카스산맥 남쪽과 흑해연안에 위치한 그루지야는 서부는 습한 아열대 기후지역이며 동부는 건조한 스텝 지역이다. 아열대지역에서는 차·귤·레몬·담배·올리브의 재배와 양잠 등 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양의 이목으로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망간과 석탄 등 지하자원과 수력자원이 풍부하고 제철, 기계, 포도주 양조장치 등의 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렇지만 소련의 경제 분업 구조에서 그루지야는 포도주와 농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농산물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개혁초기 경제발전엔 필요한 자본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농산물 수출이 주된 자본축적 방법이었지만 소련의 각 공화국이 독립국으로 변하면서 농산물 교역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덧붙여 환금성이 높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주목을 끌만한 투자여건도 마련되지 않았기에 경제난 해소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였던 1992-93년의 내전으로 개혁시작 자체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늦게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장미혁명으로 명명되는 정치적 지각변동으로 상당한 내홍을 겪으면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다행이도 바쿠에서 시작하여 트빌리시를 거쳐 세이한으로 연결되는 송유관(BTC)이 완성되고 난 다음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송유관 통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개혁에 필요한 외부적인 조건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친러성향의 압하지야 공화국과 남오세티야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면서 개혁은 예상 밖의 난제를 부닥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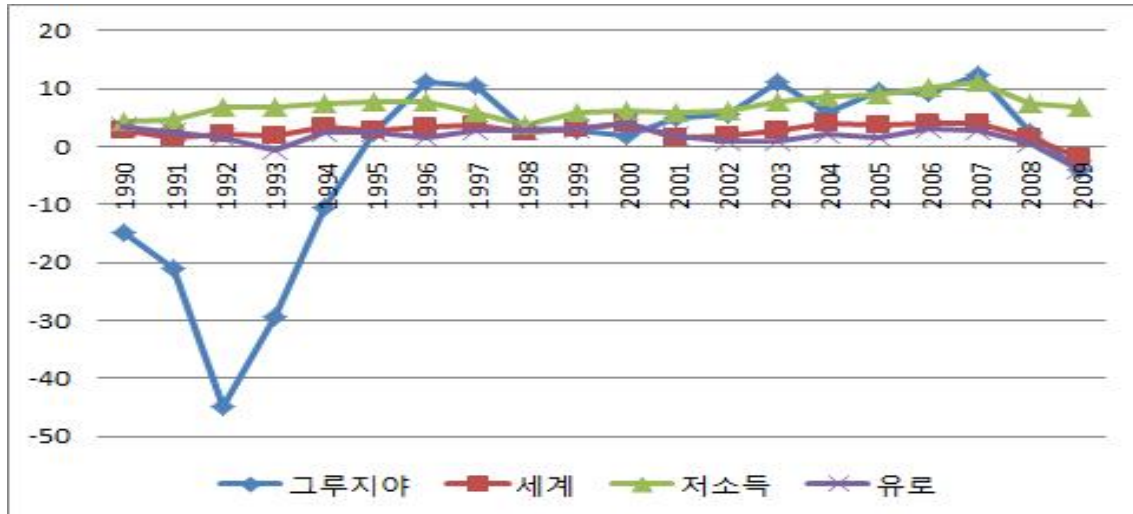
1) 이 논문은 초고이며 통계자료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이 연구는 그루지야 체제전환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여 체제전환이 국가와 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진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즉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연역적 토대위에서 체제전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과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형성하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의 행위자들이 선택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루지야의 발전에서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사카쉬빌리 정권이 개혁을 진행하면서 다시 과거 세바르드나제 정권에서 있었던 권력의 전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체제전환에서 사회적 토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고자 한다.<sup>2)</sup>

## II. 체제전환과 개혁의 성과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체제전환의 제도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혈연에 바탕을 둔 씨족 사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루지야의 체제전환이 평탄할 것으로 예견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굴곡 많은 체제전환의 과정을 보였다. 그루지야의 통계청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GDP는 2009년 3.9% 하락하여 179억 라리 (97억불)에 머물고 있으며 일인당 GDP 역시 4,092 라리 (2,200 USD)로 떨어졌다.<sup>3)</sup> 경제활동에서 국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아 16%에 달하는데 이는 산업 15%, 무역 14%, 교통 및 통신 12%, 농업 10%를 앞지르고 있다.

<그림 1> 경제성장률 국제비교 (%)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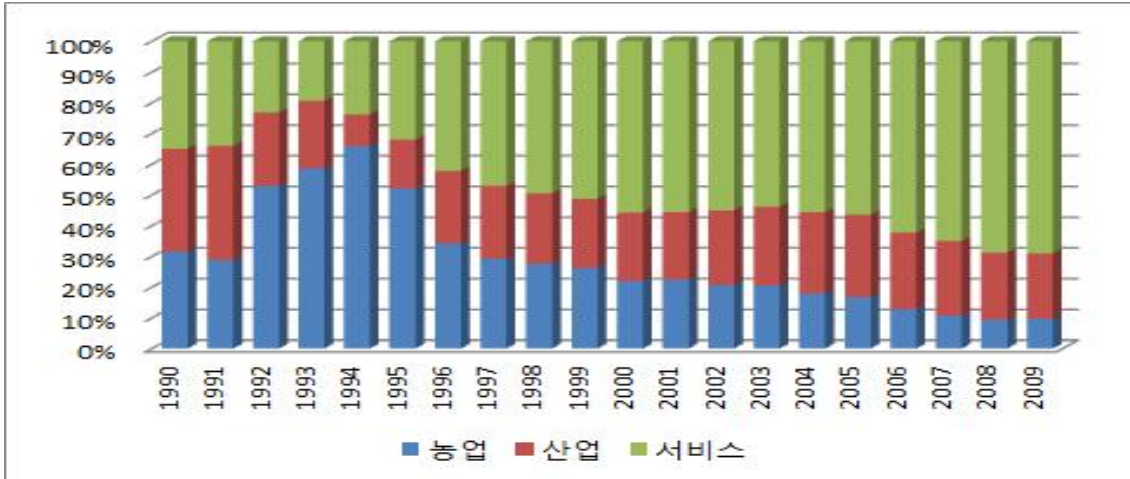
체제전환이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과 산업이 지배적인 구조를 가졌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루지야의

2) 논문의 초고를 제출하는 순간까지 제도주의 관점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어떤 연구전략을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여 연구방법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III장은 제도주의 관점에서 IV장은 신자유경제학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향후 보안을 통하여 하나의 관점으로 내용과 방법론을 통일시킬 것임을 밝힙니다.

3) 2008년과 비교하면 GDP는 197억 라리이며 일인당 GDP는 4,353 라리였다.

산업구조는 서비스가 주도적인 산업구조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체제전환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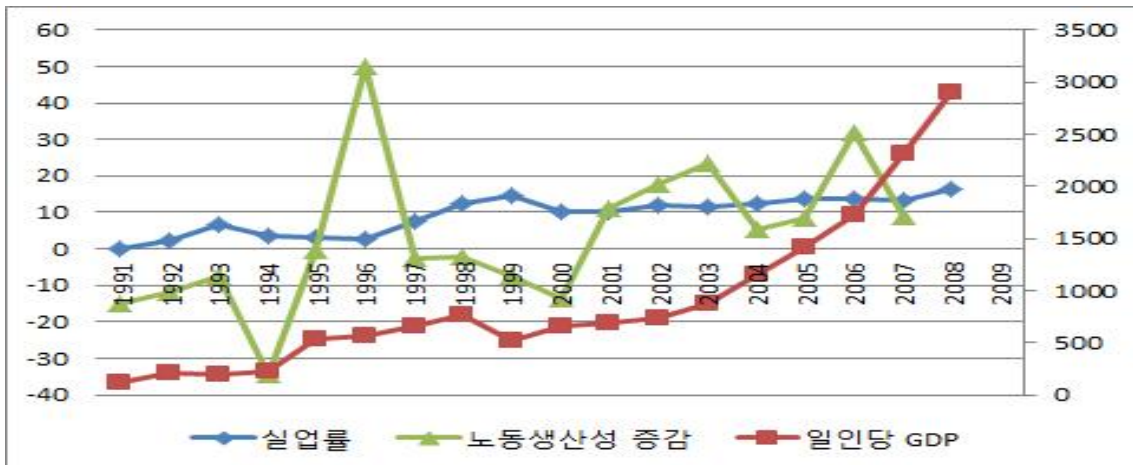
<그림 2> GDP대비 산업구조 변화 (%)



자료: 세계은행

산업구조를 제외하고 체제전환이후 만들어진 다른 지표들은 부정적인 신호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실업률에 있어 공식적인 실업률이 16.5%(2008)로서 크게 나쁘다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취업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자이며 이들 상당수는 농업부문에 55%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sup>4)</sup> 노동생산성은 시간을 축으로 상당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내전과 장미혁명 등 굴곡어린 체제전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호들 속에서 그나마 일인당 GDP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경제가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실업률, 노동생산성증감, 일인당 GDP (%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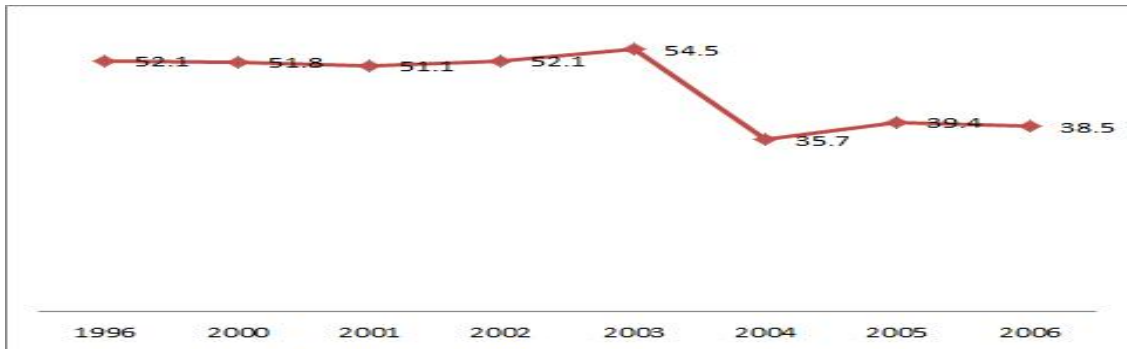
자료: EBRD

체제전환을 시작할 당시 내전까지 겪으면서 그루지야의 빈곤층 비율은 다른 체제전환 국

4) Georgian Economic Review(2009), p 10.

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빈곤층의 높은 비율은 2003년 장미혁명의 한 단초가 되었다. 다만 1998-1999년을 기준으로 CIS국가들의 절대빈곤층 비율을 비교한 결과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 가운데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빈곤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 빈곤층 비율 (%)



자료: Iakob Meskhia(2008) Living Standards and Poverty in Georgia.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정도도 역시 커졌다. 자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2003년 이후 불평등 정도는 조금씩 개선되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그루지야 지니 계수 변화



자료: UN

### III. 체제전환의 시기적 전개 과정: 제도, 국제관계 중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루지야의 체제전환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많은 변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그루지야 체제전환을 시기로 나누고 시기별로 제도와 국제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내전과 체제전환 (1991-1994)

그루지야는 1991년 4월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초대 대통령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즈비아트 감사후르디야가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루지야 영토내에 소속된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지역과 그루지야 정부간 내전이 발발하여 독립초기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남오세티야는 1991~93년 그루지야와 전쟁을 벌이고 러시아연방의 북오세티야와 통합을 요구하였다. 내전이 시작되면서 즈비아트 감사후르디야(Gamsakhurdia)는 1992년 1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해 3월 소련 외상을 지낸 에두아르트 세바르나제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1992년 그루지야 북서지역 흑해연안에 위치한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그루지야 정부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 93년까지 전쟁을 겪었다. 내전은 1993년 7월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sup>5)</sup> 내전을 치룬 두 지역에는 UN 그루지야 정전감시단(UNOMIG)이 설치되었다.

독립된 그루지야는 지금까지도 크게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내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크지 않은 영토에 2개의 분쟁지역과 다른 하나의 자치공화국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이후 민족 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분쟁은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쟁 집단 간 갈등이 상존하면서 개혁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국가마저도 쉽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1989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남 오세티야에는 그루지야인이 29%에 불과하고, 압하지야에는 45.7% 그루지야인, 17.8% 압하지야인, 14.3% 러시아인, 14.6%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어<sup>6)</sup> 이러한 민족의 다양성은 민족분규로 이어졌고 그루지야는 영토적 완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정운영이 불안하게 되어 제대로 개혁을 진행할 동력을 얻지 못하였다.<sup>7)</sup>

남오세티야와의 내전으로 1,100여명의 인명손실이 있었고<sup>8)</sup> 남오세티야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루지야인들 가운데 40%가 이 지역을 떠났고 약 3만명의 오세티야인들도 북오세티야로 이주하였다. 내전은 그루지야 영토의 일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사적 재산권 보장과 경제거래 자유화에 관련된 제도 정비와 개혁 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야권 세력은 1991년 8월에 발생한 소련의 보수 쿠데타를 추종하여 9월 감사후르디야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에 반발하여 사임을 요구한다.

감사후르디야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트빌리시 주변에서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전투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1991년 12월말에는 트빌리시 전역에서 시가전이 발생하였다. 감사후르디야는 1992년 1월 친정부세력이 패배하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해 3월 세바르드나제가 그루지야 국가평의회(State Council) 대표가 되었고 내전으로 발생한 위기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그렇지만 감사후르디야를 지지하는 세력은 서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압하지야에서 통제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압하지야 최고 소비에트는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그루지야는 바로 압하지야의 독립을 부정하였고 이는 다시 양 지역간 내

5) 유승만

6) Zurcher(2005).

7) 남 오세티야의 민족주의 운동은 그루지야가 독립하기 이전인 1989년 8월 언어법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남오세티야는 오세티아어를 공식언어로 공포하여 이러한 조치에 저항하였다. 또한 남오세티야를 자치 지역에서 자치 공화국으로 격상시키고 북오세티야와 합병할 것을 소련과 그루지야 당국에 요청하였다. 그루지야 공산당과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그루지야의 독립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1989년 11월 약 3만명의 그루지야인들이 남오세티야 수도 츠히빌리에서 시위하였다. 당시 양 민족간 충돌은 소련 공안당국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때부터 내전의 불씨는 키워지고 있었다. Zurcher(2005) 참조.

8) Mukomel(2001), p. 24.

9) Zurcher (2005:94)

전의 빌미가 되었다. 1993년 9월 중순 압하지야 반군은 수크미를 급습하였고 그루지야가 압하지야 남부의 감사후르디아 세력과 북북의 압하지야 반군에 동시에 반격을 가하면서 그루지야는 다시 내전의 수렁에 빠져든다. 그루지야군은 수크미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 세바르나제는 러시아의 개입을 통하여 내전을 종료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CIS 가입을 전제로 도울 수 있음을 알렸고 세바르나제는 CIS를 가입을 선언하면서 1993년말 내전은 끝났다. 압하지야와의 내전으로 무려 12,000명의 인명손실을 겪었고 14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sup>10)</sup> 난민문제는 1990년대 그루지야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그루지야는 소연방 구성 공화국 가운데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지만<sup>11)</sup> 낮은 수준의 임금, 빠듯한 재정상태, 취약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능력을 가지고 체제전환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초기조건에 더하여 독립을 전후로 발생한 1990년대의 내전과 민족 갈등으로 야기된 사회불안으로 성장 잠재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더 늘어났고 사회와 경제 개혁은 지연되었으며 생활수준은 나빠졌고 빈곤층은 늘어났다. 1990년과 1994년 사이 실질 GDP는 70%가 감소하였고 1996년 말 기준으로 GDP 규모가 1989년의 1/3으로 줄어들었다고 추정된다. 내전으로 그루지야는 인구의 30%를 잃었으며 거주지를 옮긴 그루지야인의 비율도 10%를 넘었으며 인구의 2/3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 불안과 이와 연동된 제도 혼란이 상승 작용하여 빚어진 결과이다. 산업기반은 붕괴되었고 계획을 대신하여 도입된 시장과 시장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물류와 통신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하였고 거시경제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내전이 종식된 후인 1994년과 1996년에 와서야 그루지야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활동을 자유화를 보장하게 된다. 다른 국가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재정과 통화정책이 변하였고 사유화정책도 시작되었으며 가격과 무역이 자유화되었다. 규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그루지야 경제는 1990년대 중반이후 다시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7년의 GDP 성장률은 1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98-2003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매년 3.0-3.5%를 기록하였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은 소수에 집중되었다. 실업률이 14%로 증가한 데다 임금과 연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소득은 줄어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수 인구는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체제전환을 시작하였음에도 개혁이 느리게 진행된 것은 정부의 역할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내전이 끝나고서야 1995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그루지야 화폐 단위 라리(lari)도 도입되었다. 그래서 1996년에 와서야 비로소 중앙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운영에 관한 제도들이 하나 둘씩 정비되었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만연된 부패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더욱이 국가부문에 고용된 고용인들에게 대한 임금과 연금지급이 연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다. 1997년 세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세관은 비효율적이었고 부패되어 대다수 기업인들은 관세를 납부하기보다 관료들에게 뇌물을 쥐서 물자를 통관시켰다. 사유화는 1990년 시작되었지만 1998년에 와서야 일정정

10) Mukomel(2001), p. 24

11) 그루지야는 소련에서 소비되었던 차의 90%, 감귤류의 98%, 와인의 60% 등 포함하여 과일과 채소의 다수를 점유하였다.

도의 규모에 도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큰 공장들은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고 1997년에 도입된 파산법은 작동하지 않았다.

체제전환의 초기적 불안에 더하여 전쟁의 여파로 높은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변동하는 환율, 재정적자, 경상수지 악화 등 발생 가능한 거시경제지표의 불안한 모습은 모두 나타나게 되었다. 1993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9,040%였고 1996년 두 자리 수로 내려갈 때까지 높은 물가상승은 계속되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인도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은행의 자본 중개기능은 마비되었다.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은행들의 이자율은 무려 76%(1995)에 달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족 간 내전이 끝난 다음 1995년과 1997년 사이 민간 분야에 신용이 GDP의 9%로 1994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지만 1998년 말 내우외환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은 다시 위축되었다.

## 2. 내전이후 장미혁명까지: 추후보완

### 3. 장미혁명이후 (2004-2008)

경제 침체는 2003년 11월 쉬바르드나제를 축출하는 장미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4년 1월 대통령이 된 사카쉬빌리와 정부는 급진적인 사회, 정치, 제도변화를 실행하였다. 2005년부터 행정기관의 주요한 목표는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경제의 법적 기반을 회복시키고 비공식 경제를 줄이며 경영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었다.<sup>12)</sup> 2003년부터 그루지야의 투자환경은 빠르게 개선되었고 세계은행은 그루지야를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서 12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04년 중반 IMF는 빈곤퇴치와 성장을 위한 기금을 연장하였다.

장미혁명 당시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문제는 빈약한 정부재정과 취약한 제도와 행정 능력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이었다. 그래서 장미혁명직후 정부의 역량은 부패를 줄이는 것과 제도 개혁에 집중되었다. 국가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정부조직을 줄이고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재배치되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금도 조정하였다. 동시에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감시하는 불필요한 제도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헌법을 수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상징적으로 교통경찰을 없애고 서구식의 순찰차량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들은 정부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도로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봐달라고 주는 뇌물은 근절되었다.

부패와의 전쟁과 동시에 진행된 제도 개혁은 재정상황을 개선하여 세금징수를 늘렸으며 정부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정부재정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정부 관료와 친인척을 체포하고 그들이 훔쳐간 재산들을 국가에 납부하면 방면하는 방식으로 반부패 의지를 통하여 달성되었다. 장미혁명이후 이렇게 확충된 재정을 사용하여 정부는 누적된 임금과 연금 체불을 해소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부패연루자에게서 거두어들인 정부예산외 기금의 지출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는 IMF는 즉각 없애버릴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 초반부터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 2005년 중반에는 신고 되지 않은 재산과 세금미납에 대해서는 사면과 합법해주었다. 이 역시 반부패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2005년 6월-9월사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은닉된 재산을 합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2) Jawad (2006).

제도개혁과 더불어 자유화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세금제도는 세금구조를 간소화하였다. 2005년 이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세가 존재하였는데 사회세(27%), 건강보험료(3%), 고용세(1%) 등 급여의 총 31%를 고용주들이 부담하였다. 새로운 세금체계에 의하여 이들 모든 세금은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 12%와 함께 하나의 사회적 지불 20%로 통합되었다. 그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경감되었고 그렇지만 세금 징수 관련 행정기능은 엄격하게 집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정부는 재정예산을 7배 증가시켰고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4.7%에서 2007년 25.8%로 늘었다. 2007년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20%의 사회세금은 없애고 대신 소득세를 12%에서 25%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개인 소득세를 늘리는 세계화의 압력에 기인한다.

2008년 중반 세법은 수정되었는데 2009년부터 향후 5년간 소득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배당세도 현행 10%에서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다. 와인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와인에 부과하였던 세금을 없애는 등 세금 절감을 통하여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고질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였던 관세행정도 개혁대상이었다. 주로 무역업자의 편의를 위한 절차간소화를 주된 정책방향을 삼았고 이 역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도입된 새로운 관세법은 이전에 16가지로 부과되던 관세종류를 세 가지로 줄였다. 농산품과 건설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세계은행이 그루지야를 기업하기 국가 순위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려놓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감소시켰다. 2005년 허가에 관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모두 950여개에 달하였던 허가는 150개로 줄어들었다. 인허가 수와 기간이 줄어들고 이에 덧붙여 기업 활동에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하여 기업 활동에 관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정치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다.

획기적인 것은 새노동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고용주에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에서 진행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2005-2006년간 진행된 개혁은 민간부분의 발전을 어렵게 하였던 여러 조치를 수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최소정부를 지향하여 부패와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루지야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07"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순위가 대폭 개선되어 2006년 100위에서 2007년 37위로 올라섰고 이후 2008년에는 18위, 2009년에는 15위, 2010년에는, 2011년에는 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루지야는 가장 빠르게 개혁을 진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변화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장미혁명이후 2004년 후반 규제완화를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새로운 독점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7년 후반 내무성은 자국시장에 반독점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내무성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 국가통계위원회를 경제발전부 산하로 소속을 바꾸면서 경제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계자료를 공지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지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통계에서 나타난다. 부처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경험있는 관료들의 지위는 서구에서 공부한 젊은 관료들로 바뀌었다.<sup>13)</sup> 그로 인하여 그

13) 캐나다 출신 젊은 여성장관



동안 축적된 많은 경험들을 잃어버렸다.<sup>14)</sup>

장미혁명이후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은 대규모 사유화였다. 사유화와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그루지야 경제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그루지야 정부는 사유화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그루지야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랍 에미리트 등이다. 러시아는 금융, 전력, 금은 채굴 및 가공 등 광범위하게 진출하였고 카자흐스탄은 가스관과 석유저장소 등에 투자하였다. 2008년 아랍 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라스 알 카이마 투자청은 항구도시 포티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포트 항구의 지분 51%를 확보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그루지야 정부는 그해 그루지야에서 활동하는 국제금융기관에 세금을 감면해주어 그루지야를 국제금융 센터로 바꾸려는 획기적인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그루지야 중앙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부과하여 매해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어서지 못하도록 정부가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5억불 유로본드도 발행하였다. 사유화와 자유화가 진행되는 동안 2005후반부터 2007년 사이 진행된 재산을 몰수하거나 재국유화하여 부패한 관료들이 장미혁명 이전 국가로부터 훔친 재산을 국가가 다시 획득하고 사유화하는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었다. 내무성과 검찰청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에 재산을 되돌리는 형식을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법권을 남용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카쉬빌리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오크루아슈빌리(Okruashvili) 전 국방장관을 국외로 추방한 것을 빌미로 2007년 11월에 다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sup>15)</sup> 강제적으로 진압하면서 반정부 세력의 사임압력에 조기 대선이라는 강수를 통하여 2008년 1월 다시 치루어진 선거를 통하여 52.8%의 표를 획득하고 사카쉬빌리는 재선에 성공하였다. 2009년 4월에 다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나타난 경제침체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많은 국내정치세력은 사카쉬빌리의 정치권력이 점차 권위주의화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제도개혁은 부패와 국가 개입을 줄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4-2007년간 GDP 성장률도 평균 9.3%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도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하반기부터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다행이도 외국인 투자가 바로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다.<sup>16)</sup> 장미혁명이전 그루지야로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미미하여, 예컨대 2002년 일인당 외국인투자 유입이 37불에 불과하였는데

14) 물론 경험 많은 그러나 기존의 개혁을 걸리적거리게 한 연결고리

15)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정치적 혼란, 군사적 충돌, 부패의 확산, 조직범죄의 급증, 밀수 등의 문제를 표면화시켰다. 전문적인 범죄행위는 '카노니에리 구르데비' ('법으로 인정받는 도둑')로 불렸는데 국가를 포획하여 정부조직과 사정당국을 공범으로 끌어들이어 정치적인 위기를 유발하였고 급기야 정치지도자를 몰아내게 하였다. 장미혁명이후 법체제 안에 존재하는 도둑과 부패한 공무원 등이 대거 체포되었다. 사카쉬빌리는 반부패 정책과 사정당국 개혁을 추진하였다. 범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축재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직 완전한 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루지야에는 높은 불확실성과 위협이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은 늘 조직범죄와 이들과 결탁한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lexandre Kukhianidze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in Georgia before and after the 'Rose Revolution'" *Central Asian Survey* Vol. 28(2), 2009, pp. 215-234.

16) 장미혁명 이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화 해주었다.

2004년에는 104불, 2006년 240불, 2007년 360불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에도 350불을 유지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주로 건설, 금융서비스, 통신 등으로 집중되었다.

인플레이션은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00-2003년간 경제성장률이 4%였고 당시 인플레이션은 3.5%였는데 이 당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활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4-2007년간 9.3% GDP가 성장하는 동안 인플레이션도 평균 11.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0-2003 기간에 비하여 세배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그 성격을 규정한다면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먼저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대규모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2004-2007년간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의 규모는 최대 GDP의 25%까지 도달하기도 하였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이 자금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공급되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것이다. 2000-2003년과 비교하여 2004-2007년간 재정 수입이 6배정도 증가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고 생긴 여유를 가지고 임금과 연금을 인상한 것도 다른 원인이 되었다. 2004-2006년간 공공분야의 임금인상 폭이 67%였으며,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폭은 더욱 큰 208%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을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주요 무역 대상국가인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의 물가상승도 그루지야 물가상승에 한 몫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당시의 물가상승이 그루지야 내부의 통화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루지야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덕분에 더 많은 재정 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고 중앙은행 통화 공급을 줄이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하여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2008년 8월 러시아와 전쟁을 한 다음에는 라리를 평가절하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였다.

2002-2007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였지만 수입의 증가폭이 더욱 컸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2002-2007년간 무려 6배로 늘어났으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02년 GDP대비 19%에서 2008년에는 22%로 증가하였다. 외국인투자와 이전수지가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2002-2007년간 외국인투자는 6.6배, 이전수지는 8.5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외국인 투자와 과실송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장미혁명이 발생하고 2004년 1월 미하일 사카쉬빌리는 96%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새정부는 구조 개혁과 고질적인 부패척결에 역점을 두었다. 2004년부터 많은 변화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sup>17)</sup>

과거체제와 구분되는 개혁을 추진할 의사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찾을 수 있다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그루지야의 안보와 경제회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루지야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사카쉬빌리는 취임직후 러시아를 방문하고 양국 간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sup>18)</sup> 사카쉬빌리의 주요 목적은 그루지야 영토에서 러시아군대의 철수였다.<sup>19)</sup> 이러한 노력

17) 이는 사카쉬빌리의 취임연설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큰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미국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왔다. 우리는 러시아에 우정 어린 손길을 내밀고 이 우정이 발전시키고자 한다.” Sakashvili (2004a)

18) 사카쉬빌리는 푸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자 여기에 온 것이다. 러시아는 거대한 파워이다. 물론, 우리는 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이해관계, 자긍심,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만일 양자 간 모든 이슈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떤 결과를 발전적으로 얻기를 바란다.” Sakashvili

은 2005년 5월 30일 양국 외교부가 2008년까지 철수를 합의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진전을 이루었다.

2006년 5월 사카쉬빌리는 압하지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민의 귀환을 비롯하여 신뢰의 구축과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 재건과 압하지야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보장하는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요구하는 압하지야와 자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양측의 입장차이는 변하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긴장관계가 현실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이 기간 그루지야의 경제적 사정은 많이 개선되었다. 이 기간 내내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8%내외에 머물고 재정적자 폭은 GDP의 1%로 낮아졌다. 비록 불안한 안정을 보였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개선되었다. 2004년부터 금융시장 역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민간기업으로 신용대출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은 조심스럽게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자금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무역과 유통분야로 신용이 집중된 것을 통하여 확인가능한데 2008년 9월말 전체 신용에서 47%를 차지하였다. 무역과 유통에 제공된 신용이 단기성이었고 외환과 연계되어 환위험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과거와 달리 무역이 러시아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바뀐 것도 자금 흐름이 무역과 유통분야로 흘러들어간 이유가 되었다.

#### 4. 러시아와 전쟁 이후

이러한 안정은 2008년 8월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공격하면서 발생한 6일 전쟁에 의하여 깨졌다. 전쟁의 상처로 실질 GDP가 2008년 190.7억 라리에서 2009년 179.5억 라리로 감소하였다. 다행이도 금융위기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하여 2009년 5.1%를 기록하였다. 물론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부분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금융권 자산은 77억 라리에서 8.7억불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장미혁명 이전까지는 러시아는 그루지야에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었다. 장미혁명 이후 친미 성향의 사카쉬빌리에 의하여 러시아의 교역순위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이어 세 번째로 내려앉았다. 러시아와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그루지야의 무역구조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2005년말 러시아는 그루지야 과일과 채소 수입을 제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위생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상은 그루지야와 나토의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 군 장교 4명을 체포하고 러시아가 대사를 소환하고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양국간 공식적인 검문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외교적인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령에 거주하고 있는 그루지야인들은 추방되고 교통과 통신마저 두절되었으며 그루지야인들에게 러시아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2006년 10월 그루지야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양갈음하듯이 2007년 1월 러시아는 그루지야로 가스수출가격을 대폭 인상하였다. 러시아의 무역 규제는 그루지야 GDP를 최소 0.5%에서 최대 2.8%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제재는 그루지야 음식료 산업에 가장 큰 치명차를 주고 있다.

또한 2008년 전쟁동안 러시아의 공격으로 그루지야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1991-1993년 내전시기처럼 다시금 주거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5일간의 전쟁으로 10억불 이상 재산상의 손실이

(2004b).

19) Atumi와 Akhalkalaki 지역.

발생하였으며 정치적 불안도 증가하고 남 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러시아 군이 진주하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도 많이 위축되었다. 그루지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후 국제사회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EU와 세계은행은 2008-2010년간 45억불을 빌려주거나 원조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EU는 그루지야와 FTA도 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법체계를 정비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 IV. 그루지야 경제성장 분석

##### 1. 분석틀

경제성장은 외연적으로 혹은 내재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 직업훈련, 보건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무역은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을 더욱 확장하여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리고 과거 중앙계획 경제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도의 질과 좋은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sup>20)</sup> 그루지야의 경제성장의 성격이 외연적인지 내재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Y = AH^{\alpha}K^{\beta}N^{\gamma}L^{1-\alpha-\beta-\gamma}$$

여기서 Y는 국내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의 계수, H는 인적자본, K는 자본, N은 천연자원, L은 노동이다. 뒤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은 0과 1사이의 계수를 가진다. 노동함수를 나누면 인당 생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Y/L = A(H/L)^{\alpha}(K/L)^{\beta}(N/L)^{\gam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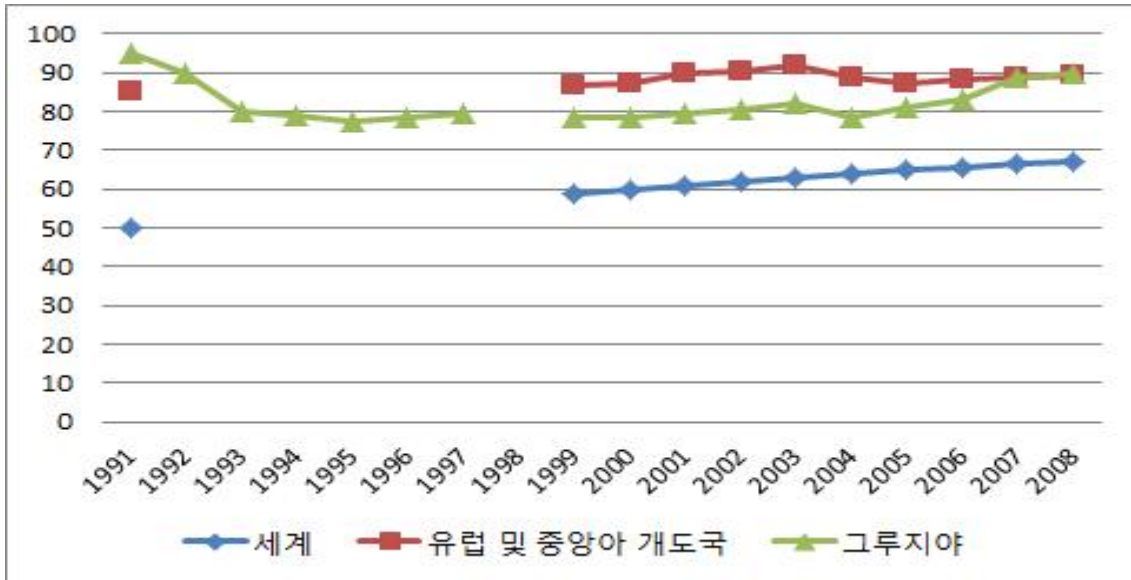
인당 생산은 효율성, 인당 인적자본, 자본과 노동 비율, 인당 천연자원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 식을 통하여 인적자본, 자본, 천연자원이 노동과 비슷한 비율로 성장하면 효율성이 인당 총생산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을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자본과 천연자원에 비교하여 인적자본이 빠르게 성장하기 쉽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을 위하여 이어서 사용되는 자료들로 경제성장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한계를 가지지만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가지는 프록시 변수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2. 인적자본

먼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비교하면 그루지야는 전 인구의 95%가 초등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중등교육에 있어서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보다는 적은 학생이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에 관한 공공지출을 키르기스스탄과 비교할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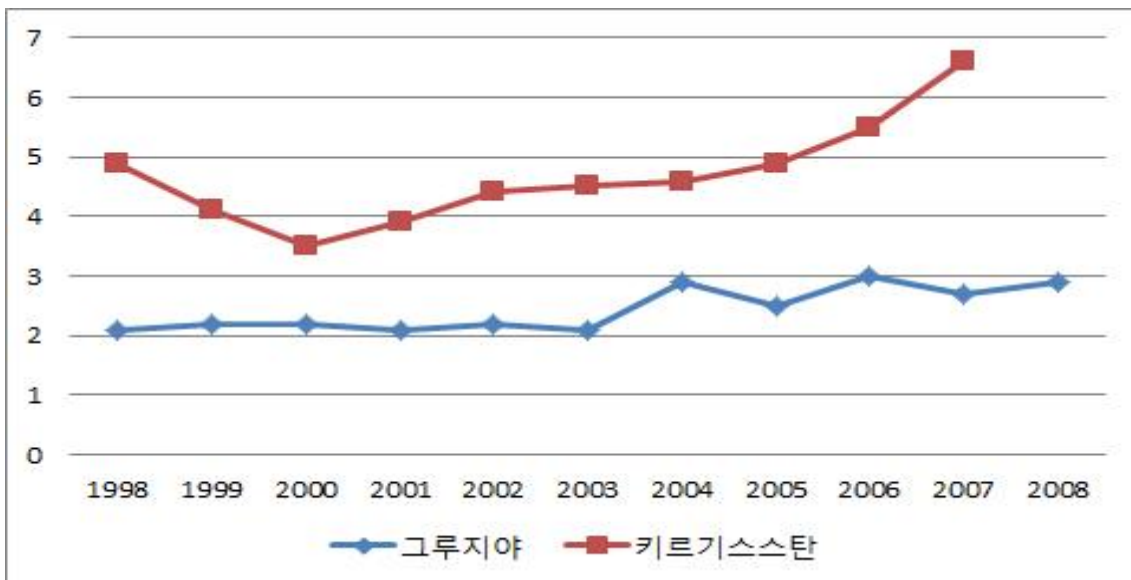
20) Fischer & Sahay(2000); Campos & Coricelli (2002); Acemoglu & Johnson(2005)

<그림 6> 중등교육 등록률 (%)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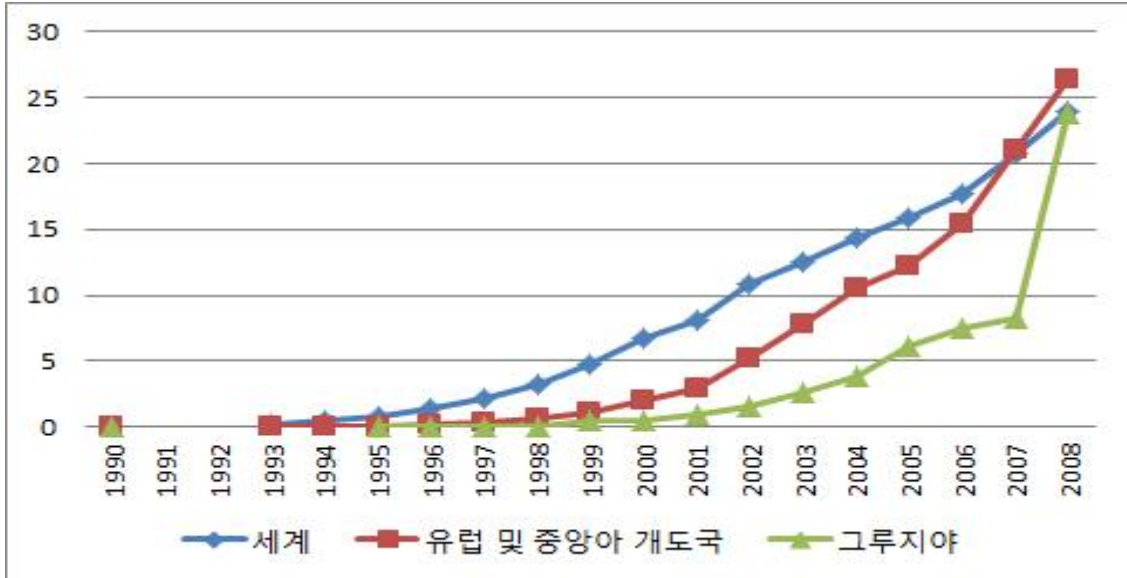
<그림 7>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



자료: 세계은행

인적자본에 관련된 인프라로 사용한 인터넷 관련 자료에서 1,000명 당 인터넷 사용인구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개도국 뿐 아니라 세계 전체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 전체와 비교하여서는 인터넷 사용인구는 늘었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개도국과의 격차도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인구 1000명 당 인터넷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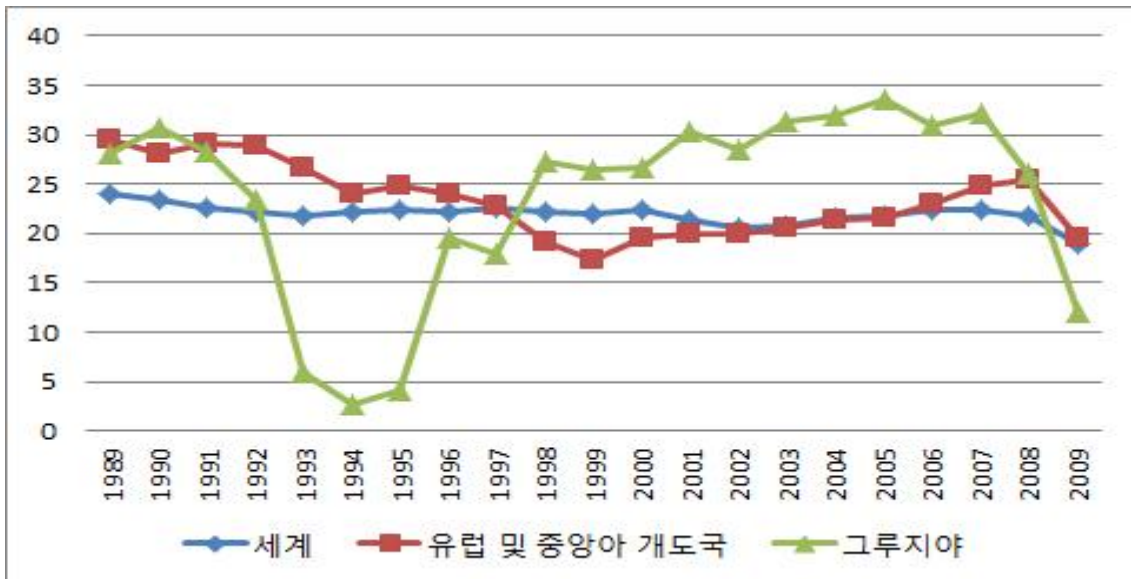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 3. 자본

GDP대비 총자본형성에 관한 자료를 비교하면 체제전환초기 내전을 겪으면서 세계전체와 비교하여 GDP비교하여 20%이상 적게 자본형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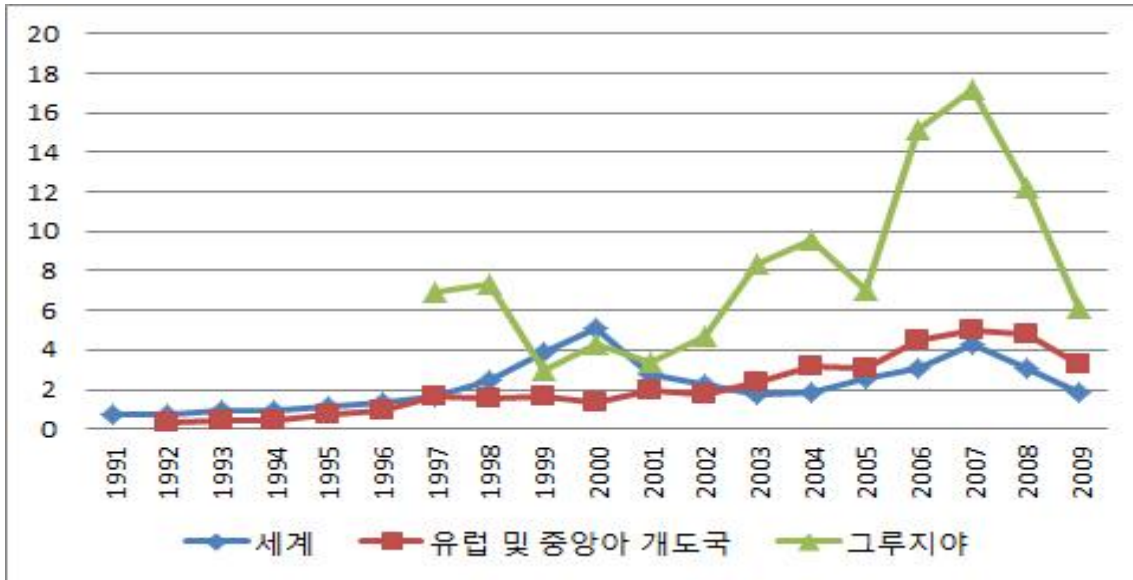
<그림 9> GDP대비 총자본형성 (%)



자료: 세계은행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그루지야는 다른 국가보다 변동 폭이 크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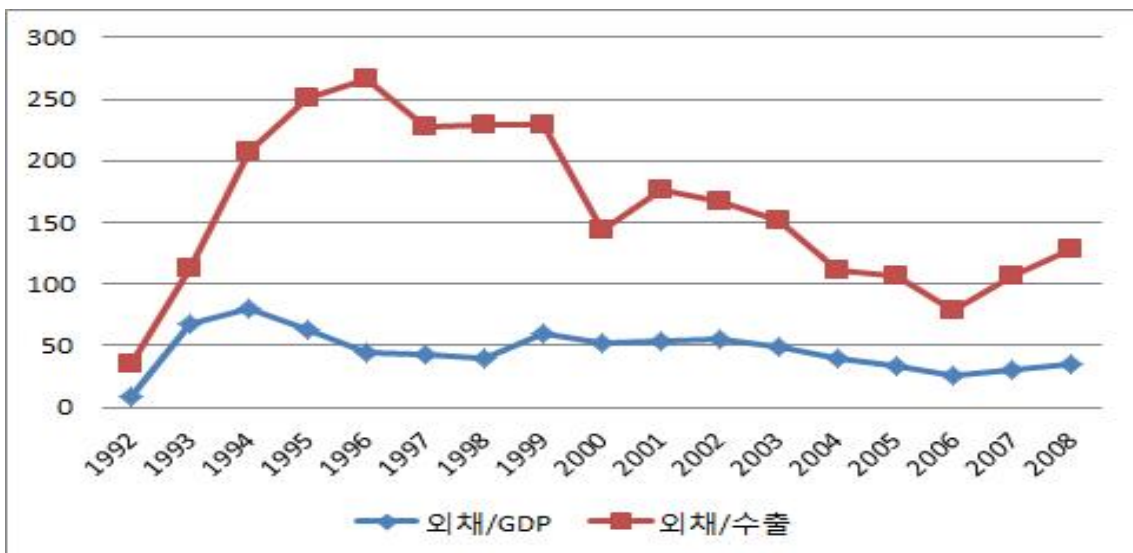
<그림 10>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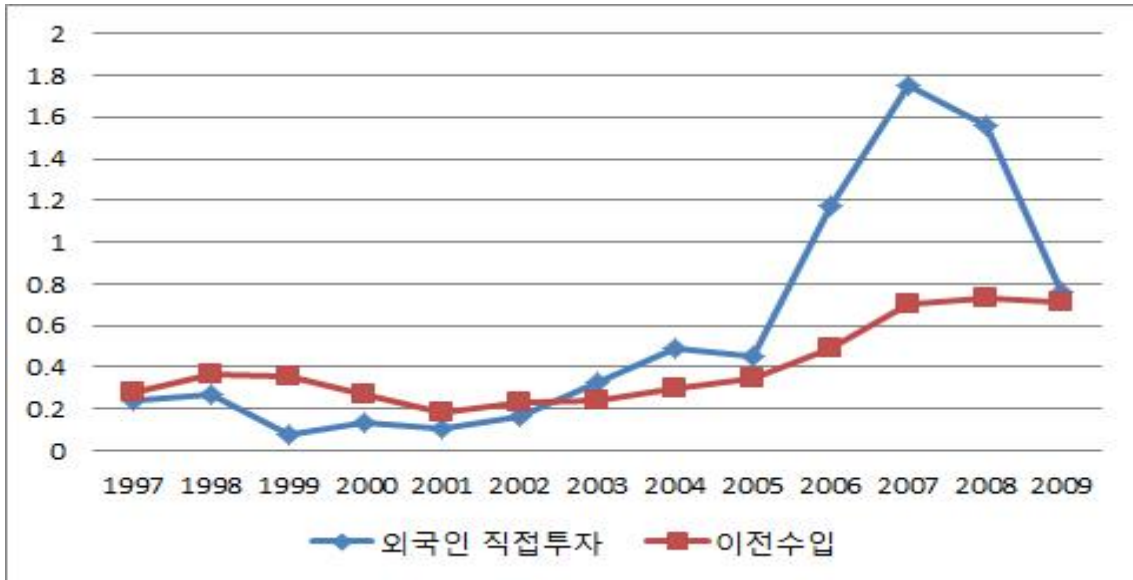
그루지야는 국내자본이 부족하여 외채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GDP와 수출 대비 외채의 규모는 여전히 높지만 시간을 축으로 점차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외채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 러시아, 터키 등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보내는 이전수입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외국인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에 외채의존도는 당분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그루지야 GDP와 수출 대비 외채 규모 (%)



자료: EB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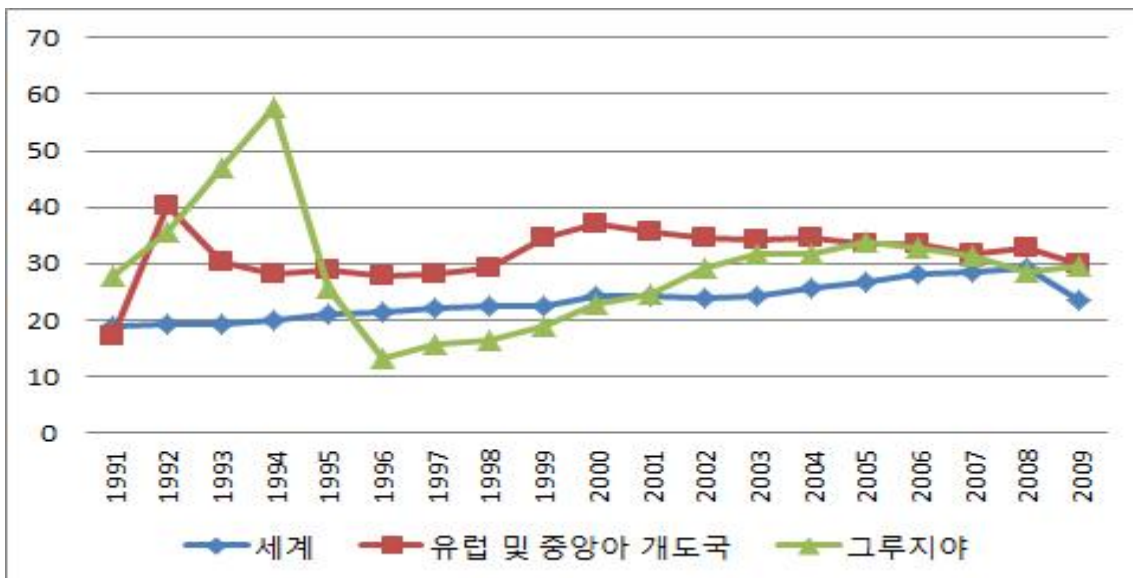
<그림 12> 그루지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이전 수입 (십억불)



자료: 세계은행

그루지야의 재화와 용역 역시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유럽 및 중앙아시아 개도국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경제에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세수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1990년대는 경제 개방정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들어 세수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림 13> GDP대비 수출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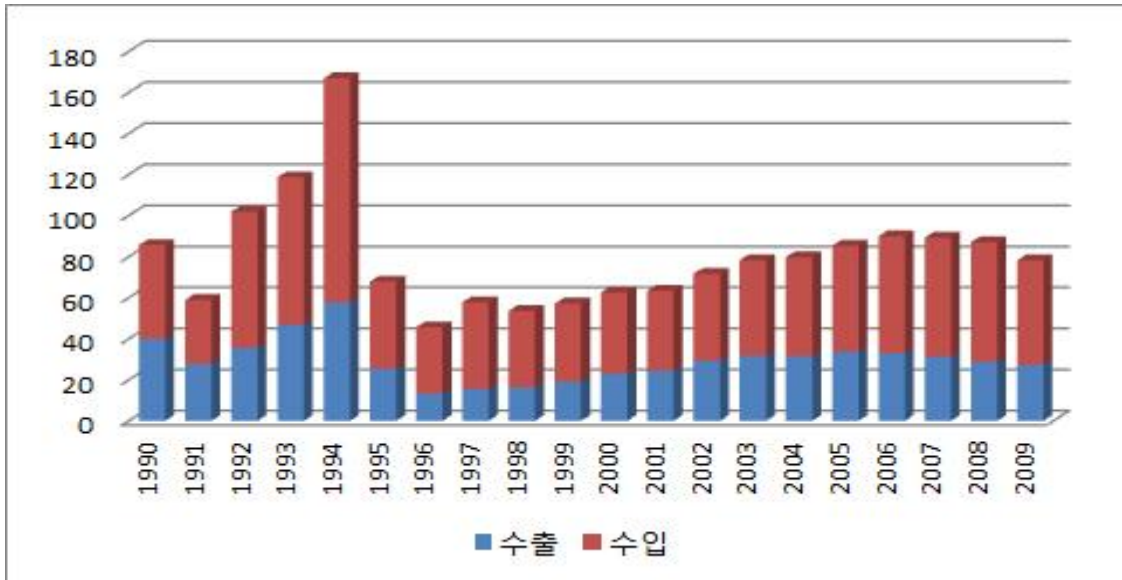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GDP 대비하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1994년 이후 무역의존도는 80%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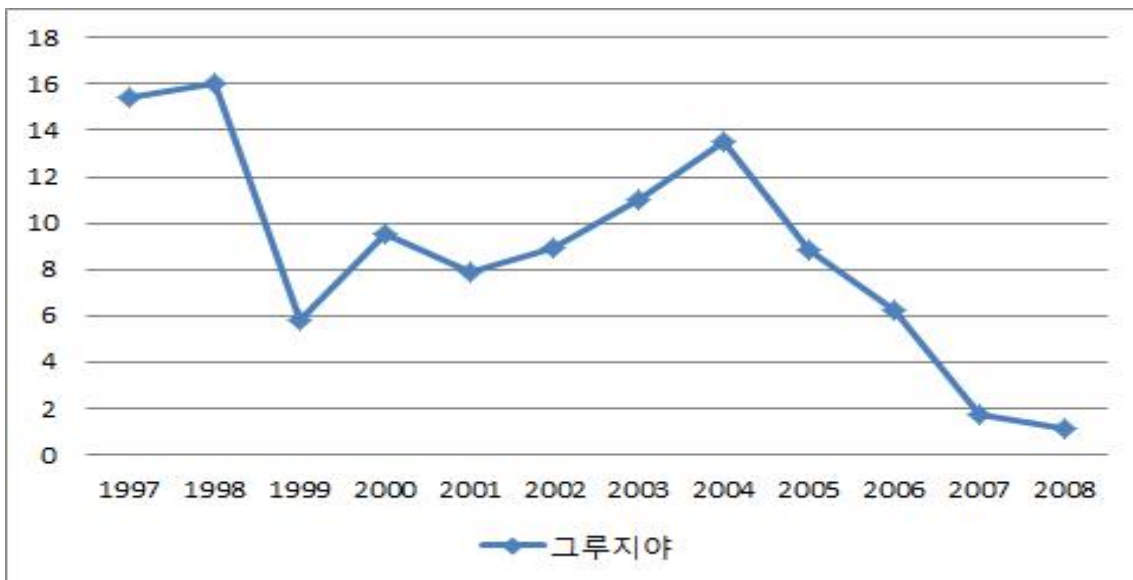


<그림 14> 그루지야 GDP대비 수출입 비중 (%)



자료: EBRD

<그림 15> 세수대비 관세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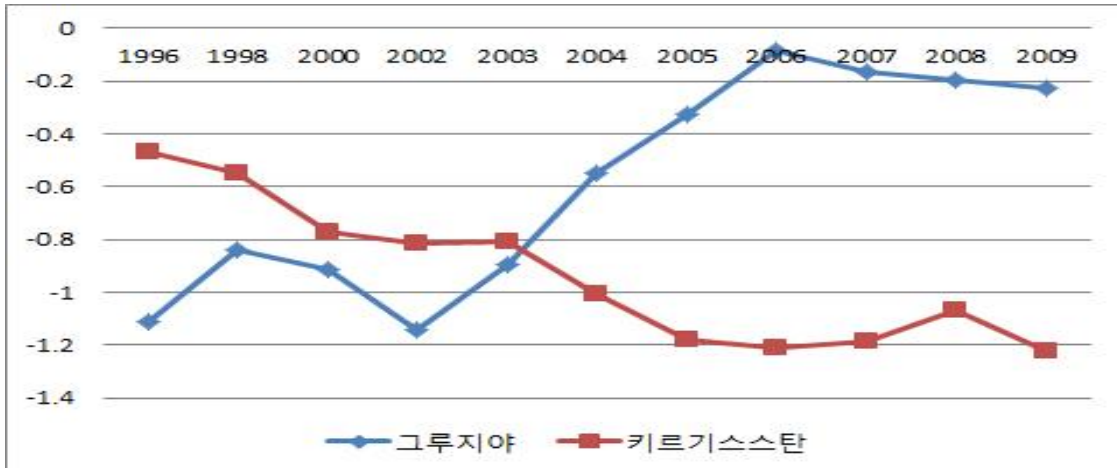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 4.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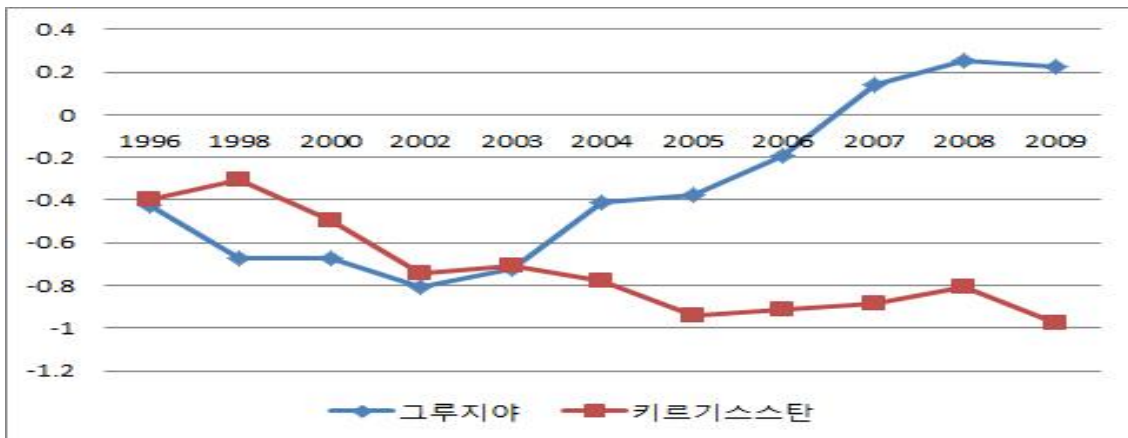
생산성을 직접측정하기 어려워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장미혁명 이후 부패의 통제, 정부정책의 효과성, 규제와 법치주의 기반 등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이전부터 내부의 알력으로 2010년 4월 소요사태를 맞이한 키르기스스탄보다 정치적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루지야는 2009년 12위에, 비교대상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44위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부패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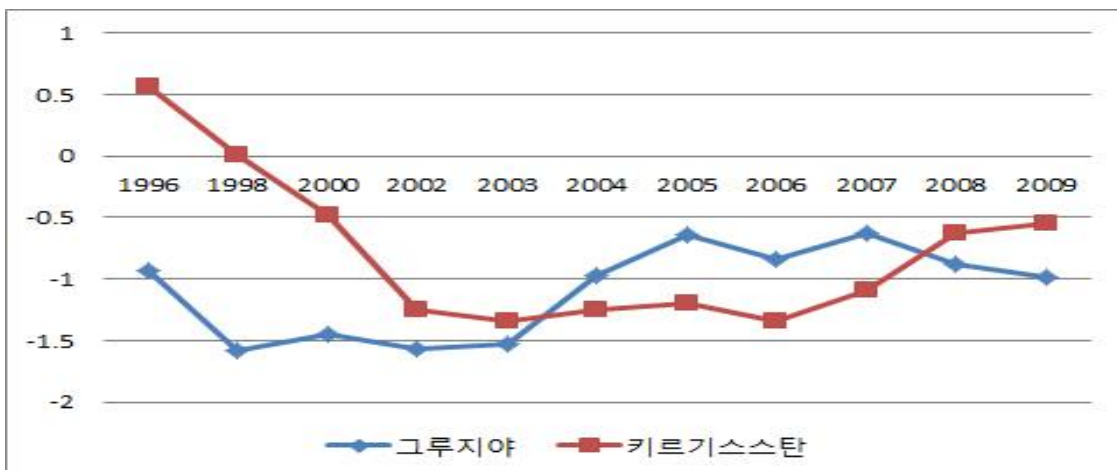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그림 18> 정부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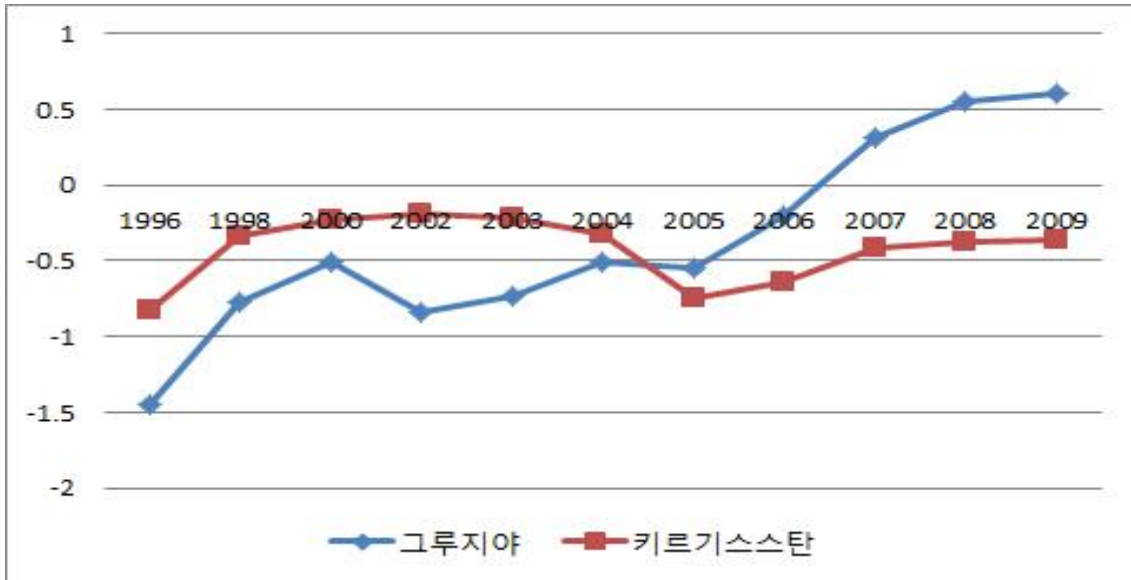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그림 19> 정치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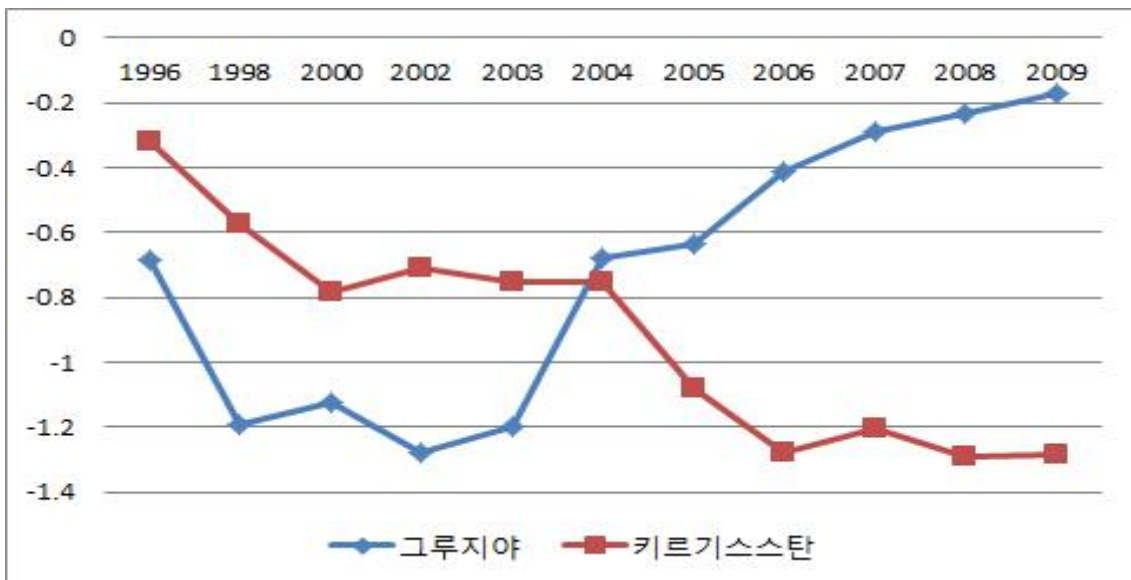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그림 20> 규제의 질



자료: 세계은행

<그림 21> 법치정도



자료: 세계은행

## V. 결론 (임시)

그루지야의 체제전환 과정을 추적하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부패가 만연하여 다른 체제전환 국가보다 특히 어려운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장미혁명을 기점으로 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 체도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미혁명 이후 개혁이 시도되고 국가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많은

외국자본이 몰려들어 체제전환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더하여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미국과 EU의 적극적인 진출은 러시아의 반작용을 낳아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자본의 진출이 주춤하고 재정위기로 어려움이 처한 EU가 당분간 그루지야와의 경제적 협력을 주저하는 동안 그루지야의 개혁과 경제발전은 다시 도전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국가운영에 있어 정치권력과 연결된 집단들이 경제적인 승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존재하고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고려한다면 그루지야는 발틱 3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장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